

청심국제고 졸/유펜대 정치학과 입학예정

김수빈 양

우물 안에서 보는 하늘은 딱 우물만큼의 넓이다. 우물을 벗어나지 않고 다른 하늘을 볼 수 없듯 사람 역시 더 큰 세상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수빈(19) 양은 미국생활 반 년이 우물 안 개구리였던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다고 말한다. 검은 머리카락의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님을 눈으로 직접보고 설편과 기대감으로 글로벌 리더의 꿈을 키우고 있다는 것. 왕성한 호기심으로 초등학교 때는 미술 글짓기 피아노 등 예능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한편 리더십을 발휘해 전교회장을 맡기도 했다. 공부보다 더 큰 세상을 알고 싶어서 고등학교 때는 국회 인턴십을 하고 싶어 무작정 지역국회에 전화를 걸었다. 운 좋게 전화 연결된 지역구 의원을 졸라고 2~3학년 방학 동안 일하기도 했다. 길이 없으면 삼 자루를 쥐고 무작정 땅을 파야 한다고 믿는 김 양에게 해외 대학 준비과정을 들었다.



우물을 뛰쳐나온 개구리 ‘도전은나의 힘’

다양한 경험과

책 읽기 비탕으로 다진 학교생활

김수빈 양은 도전을 좋아한다. 잘 하고 못하는 것에 상관없이 항상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많은 경험을 하려고 노력했다. 어머니 기회정(46) 씨는 “수빈이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원하는 걸 하고자 노력했죠. 다양한 취미활동이 아이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에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그 때문에 김 양은 초등학교 때 발레 미술 플루트 글짓기 피아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가졌다. 특히 미술과 글짓기를 좋아해 초·중학교 시절 교내대회는 물론 전국 시·도 대회에서도 많은 상을 휩쓸었다. “제5회 전국 청소년 문예 대제전 출품작이었던 ‘개미지옥’이 기억에 남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린 작품이거든요. 예능을 좋아했는데 항상 책 읽기가 바탕이 되었어요. 그림을 그리거나 피아노를 칠 때도 상상력과 표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바탕이 되어준 것이 책 읽기예요. 위인전 한국단편소설 역사소설 세계소설전집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읽었지요.” 김 양은 초등

학교 시절 내신과 관련된 공부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중학교 내내 전교 10등 안에서 머물렀다. “다양한 책을 섭렵해 어휘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또래들보다 뛰어났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요.”

김 양은 6개월 동안 다닌 학원에서 가르치던 공부법이 맞지 않아 중학교 내신관리는 스스로 했다. 국어와 사회는 학교 교과서와 같은 출판사에서 출간한 문제집의 요약본을 참고했다. 적으면서 외우는 학습법을 고집하던 김 양은 문제집의 요약정리를 교과서에 옮겨 적고 다시 교과서의 본문과 요약본을 노트에 옮겨 적는 방식을 고수했다. 문제집의 요약본은 보되 문제는 풀지 않았다. 교과서 설명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김 양의 지론.

취약과목이었던 수학과 과학은 과목의 특성상 문제집을 풀어보았다. 영어는 달달 외울 정도로 교과서 본문을 통째로 암기했다. 내신은 교과서 본문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 편이 제일 정확한 공부법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학교 영어시험은 교과서 본문을 바탕으로 해요. 예를 들어 문단을 섞어놓고 바른

순서대로 골라보자는 문제나 주제를 묻는 문제유형이 출제되었을 때 유용하죠. 본문을 모두 기억하고 있으면 시험 시간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어요.”

우물 안 개구리는 되지 않겠다

김 양이 자신의 활동무대를 세계로 정한 데는 반년 남짓한 해외 체류경험을 비롯하여 무역업에 종사하시는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 김 양은 ‘Hello’만 알던 초등학교 1학년을 미국에서 보냈다. 대화가 통하지 않자 친구가 생기는 커녕 담임선생님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 울면서 매달린 기억이 난다.

학습 부분에서 적응이 어려웠다고 토로하며 조기유학이라는 표현이 부끄럽다는 김 양은 미국에서 영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문화를 배워왔다고 했다. “세상에 검은 머리카락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영어를 못하는 두려움이 컸지만 시간이 갈수록 설편이 더 컸죠. ‘와, 진짜 이런 곳도 있구나’ 싶었어요. 게다가 잔디밭에 앉아 야외수업을 하는 학교 수업과 추수감사절 행사, 할로윈 파티

가 열리는 미국 문화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이후로 세계 여러 나라를 출장 다니시는 아버지를 따라 다니며 해외에서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꾸준히 키웠죠. 아버지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땐 회사 공장 한쪽의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하는 분들 옆에서 따라하며 이슬람에 대해 알고 배울 수 있었고, 태국에서는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과 궁전을 보며 왕정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런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인 미국이라면 한국에서는 배울 수 없는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김 양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회화학원에 다녔다. 문법이나 학교 영어학습을 위해 다닌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의사소통이 힘들었던 점과 다시 미국으로 가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스스로 하고자 마음먹고 배우니 영어가 더욱 재미있었다. 꾸준히 쌓은 실력으로 중학교 2~3학년 때는 삼보어학원에서 토플을 준비했다. 결과적으로 토플성적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정말 영어를 열심히 배웠다. 초등학교 시절 영어에 노출은 되었지만 상대적

으로 작문은 에세이쓰기 첨삭의 반복 과정을 통해 익혀나갔다. 또 신문이나 책을 읽고 좋은 구절은 영어로 번역해서 외웠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는 씹먹어보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어렵고 힘든 일 도전 할 때가 제일 좋아

김 양은 청심국제고 첫 회 입학생으로 겪은 우여곡절도 많다. 공통교과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제반과 국내반 수업 모두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한 해 동안 진행되었다. 고2 때가 돼서야 국제반 국내반 수업이 나뉘어졌는데, 국제반 같은 경우는 국제정치 국제문화 국제경제 세계사와 같은 수업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학과공부도 하며, SAT I·II와 AP 등 미국 대학입시 준비를 할 수 있었다. “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빨리 SAT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고1 과정을 그냥 공통교과로 수업한 뒤 2학년 때 당장 SAT 시험을 봐야 하는데 겁이 났죠. 방과후 수업의 일환으로 AP 강좌가 신설됐는데 국제반 학생 대부분이 AP 강좌를 통해 자신이 정한 SAT II 과목과 연계해 공부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학교 영어 수



미국에서 반년 밖에 살지 않은 김수빈 양의 영어실력 비결은 해외원서와 미드다. 어려운 원서보다 재미난 내용의 해외원서를 접하고 미드를 보며 본토의 발음을 익혀나가는 것이 영어공부의 재미를 배가시켜 준다.

/사진=선우형준 기자blog.veritas-a.com/jakesunu

어린시절 해외생활 영어보다 건문 넓혀 기숙사 강제소등해도 창문 가리고 공부

업은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많은 원서를 읽고 토론한 후 페이퍼를 쓰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읽었던 어려웠던 고전과 그에 관한 영작문이 단어와 리딩, 에세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요.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은 저로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노자>를 읽고 수업시간에 현명한 리더의 조건에 있어서 둘을 비교하여 다양한 해석을 해가며 토론하고, 현시대의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을 생각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 4시간은 SAT 모의시험을 치렀다. 선생님과 함께 오답풀이를 한 뒤 열람실에서 각자 틀린 문제를 다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공부했다. 매일 아침마다 SAT 단어시험도 치렀다. 이는 생활태도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욱 열의를 불태웠다. 김 양은 SAT준비도 잘 되지 않고 문제유형도 몰라 학원의 도움을 받았다. “학원의 이점은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용이하다는 점이에요. 문법의 경우, 중요시 되는 11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문제에 적절하게 대입해주는 기법을

알려줘서 좋았어요. 또 기출문제집이 유형별로 분석되어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입해서 기숙사에서 풀었지요.”

에세이가 가장 쉬웠다는 김 양은 에세이 공략법을 알려주었다. 유엔대 에세이 작성에서 정해진 주제는 “방금 자신이 만든 300쪽 자서전의 217쪽 내용을 적어보라”는 것이었다. 김 양은 자신이 지원하는 학부의 특성과 자신의 꿈을 잘 드러내는 데 포인트를 잡았다. 국회의원이 된 후 첫 정책을 발휘하는 장면을 기재했다. 일주일엔 한번씩 고아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과외와 비행 청소년 멘토링 경험을 살려 소의 받는 계층에게 평등한 교육권과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서술했다.

에세이 작성에는 숨은 비법이 있다. 예문 다섯 개만 외우면 만사형통이다. 대개 에세이의 구성을 서론 본문 예제 3개 결론으로 매듭짓는데, 여기에 쓰일 본문 예제3개는 미리 외우고 가는 것이 좋다. 김 양은 문학 과학 인물 역사로 분야를 나누어 각 두 개씩 예제를 생각해 외웠다. 에세이 주제는 원론적인 질문들이어서 준비된 예시를 주제에 맞게 문장의 연결고리를 앞뒤로 적어주면 쉽게 써내려 갈 수 있다. 이 방

법으로 김 양을 포함 청심국제고의 국제 대학 시험을 치른 학생들 대부분이 만점을 받았단다.

내신 관리비결

김 양의 내신은 늘 반에서 1~2등일 정도로 좋았다. 김 양은 그 비결이 자신과 궁합이 맞는 수업 방식에 있다고 말했다. “중학교 때처럼 선생님 말씀만을 따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수업시간마다 많은 프레젠테이션과 발표를 준비해야 했죠. 이를 통해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표현력을 기를 수 있으면서 준비과정에서 팀을 이끌어 나가며 리더십 또한 기를 수 있었어요. 대외 활동에도 도움을 받았어요. KTF 역사지킴이에 ‘두쇼 역사지킴이’ 리더가 되어 팀 발표 면접을 잘해 합격한 점, 또 한국국제모의국회 청심자선음악회나 그를 위한 후원행사에서 발표 때마다 수업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죠.”

수업방식은 만족스러웠지만 시작이 모두 좋았던 것은 아니다. 선생님과 학생 간의 상호소통이 문제였다. 국어와 국사를 제외한 과목을 영어로 수업 가능한 선생님들이 모였기에 교

직에 오래 머무른 분들이 아니었다. “철학과 교수님이셨던 분이 사회담당 선생님이로 오시고 연구만 하셨던 분이 과학담당 선생님이로 오신 경우도 있어요. 정말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이시지만 본인이 교수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시거나 수업 경험이 적어 선생님과 학생 간의 상호소통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서로 노력해 개선해나갔고, 이후에는 다른 선생님들과는 달리 그 분들의 무용담이나 새로운 마인드를 배울 수 있어서 그 어떤 선생님들보다 좋았어요.”

정해진 공부법이 없었던 김 양은 내신관리비법을 문자 색연필 공부법을 알려주었다. 중학교 때에는 노트정리를 활용했지만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부터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해외원서를 교과서로 사용하니 그에 맞는 문제집은 없었다. 그래서 고안한 방법이 색연필 공부법. “밝은 색의 색연필로 여러 번 밑줄을 긋고 원서 위에 글도 써가며 외우는 거예요. 종이가 울지도 않고 여러 번 줄을 긋고 필기를 해도 내용이 전부 보이죠. 효율성으로 따지면 시험기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학습법 같아요.”

김 양은 늘 잠이 부족하지만마인드 컨트롤에 능하다. 김 양의 하루 취침 시간은 평균 3~4시간, 시험기간에는 2시간 동안 수면을 취한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청심국제고에서는 자정이 되면 강제소등을 한다. 매일 저녁 방안 플러그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복도 플러그에 멀티 탭을 꽂아 방안 스탠드에 불을 밝혔다는 김 양. 밖으로 빛이 새어나가면 선생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신문지로 창을 가리고 공부했다. “혼자 불을 밝히고 공부 할 때의 짜릿함은 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몰라요. 친구들이 하나 둘씩 잠이 들 때 나 혼자 공부하고 있다는 자기 격려와 칭찬은 저에게 큰 힘이 돼주었어요. 대신 부족한 잠은 낮잠으로 채웠어요. 학교에서 4시 정도에 수업이 마치고 때문에 한 시간 정도 낮잠을 잤죠. 꿀맛 같은 단잠을 자고 나면 집중하고 다시 공부하는 데 무리가 없었어요.”

김 양은 유엔대학교 정치학과 수시 전형에 합격, 현재 출국을 앞두고 있다. 김 양은 공부에 더 매진해 세계를 바꾸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은지 기자blog.veritas-a.com/color

취재 후기 veritas-a.com 클릭 

■김수빈 양의 합격열쇠는 대외활동보고서

김수빈 양은 개척정신과 리더십이 강하다. 매년 열리는 대외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외 활동을 만들었다. 밤새도록 PPT와 씨름하며 학교 학원 언론사 기업을 찾아 대회 취지의 목적을 알리고 후원 받는 것에 적극적이었다.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하고 싶은 것은 두 손 두 발 걷어 부치고 현장에 직접 부딪칠 때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KTF 역사지킴이 프로젝트

김 양은 ‘두쇼 역사지킴이’를 직접 꾸려 ‘동북공정’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들에게 알렸다. 일을 진행 하기에 앞서 자료를 수집하고 후원을 받기 위해 각 기업에 직접 전화를 돌렸다.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준비하며 초청장 700부를 서울 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며 직접 배포했다. 다른 학교에 연락해서 직접 교육도 하고 역사 UCC를 만들어 다음 포털 사이트에 올려 뜻하지 않게 상도 받았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 김 양은 우리역사 바로알기 시민연대에 연락해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연계활동을 하기도 했다.

청심 자선 음악회

청심국제고에선 연말마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청심 자선 음악회를 개최한다. 플루트 바이올린 가야금 아카펠라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갈고 닦은 공연을 초청한 외부인에게 선보이고 후원을 받는 자선 행사이다. 좋은 취지로 후원을 받지만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다. 이에 김 양은 적극적으로 나서 각 기업들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낸 전화로 후원을 요청했다. 그 해에 후원된 금액은 총 2400여 만 원. 순이익을 낸 1400만 원은 해외 아동과 경기도 가평군 지역의 불우한 아동들에게 기부했다.

한국 국제 모의국회

하버드 모의국회를 다녀온 김 양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한국에는 모의국회가 없어 김 양은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 직접 한국모의국회를 만들고자 했다. 정치에 뜻을 둔 김 양은 한국에도 청소년을 위한 모의국회가 도입돼야 한다는 생각에 친분이 있던 한영외고 재학생과 함께 뜻을 모았다. 학교연합을 만들어 대회를 구상하고 수업이 끝나면 공장 후원을 받으려 대치동 명동을 서성이며 눈에 보이는 건물 안은 모두 들어갔다. 그 결과 첫 모의국회에 120명이 참가했다. 두 번째는 300여 명, 제3회를 맞은 올해에는 1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졸업한 김 양은 올해는 자문으로 활동할 것이라며 아쉬움을 남겼다. 모의국회 이후 정치에 대해 좀 더 깊게 알고 싶은 김 양은 정치와 국제관계에 대해 청소년이 공부할만한 연수를 만들고 싶어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대학 교수님들께 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연세대 학장님을 비롯 많은 분이 강의를 해주셨다. 그밖에 보건복지부에 청소년 법률안을 정부기관에 건의하고 ‘21C청소년청소년 평등국회’에도 참여하는 등 대외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였다. 김 양의 유엔대 합격은 길이 없으면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는 꿈을 향한 열정적 에너지를 발산할 결과물이다.